



지난 6일(한국시각)카타르 테크니컬센터 구장에서 훈련중인 월드컵 대표팀 기성용의 스트레칭 모습이 마치 최강희 감독의 등을 떠미는 것처럼 보인다. /연합뉴스

‘유로 2012’ 농칠 수 없는 빅매치 무적함대, 빗장수비 뚫을까

11일 스페인 vs 이탈리아



잠들면 후회한다. 축구 별들의 전쟁 2012 유럽 축구 선수권(유로 2012)이 9일 새벽 1시(한국시각) 폴란드와 그리스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월드컵 우승 보다 어렵다는 유로 2012 우승컵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우승후보들의 빅매치가 펼쳐져 더 재미있는 유로 2012. 진정한 축구팬이라면 농칠 수 없는 서바이벌의 백미를 소개한다.

◇C조 스페인 vs 이탈리아(11일 01:00) 미리 보는 결승전. 조별리그 최고의 빅매치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국인 스페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승후보 0순위. 스페인은 예선 8경기 전승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험난한 패스와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6경기를 2골 차 이상으로 완승하는 등 예선전 내내 단 한 번도 위기에 처하지 않는 완벽한 플레이를 했다.

스페인인 주장인 골키퍼 카시야스를 비롯해 사베, 이니에스타, 토레스, 실바, 라모스, 알론소 등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스타군이다. 패스 마스터 사비와 컨트롤의 마법사 이니에스타는 스페인 축구의 엔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에 비유될 정도로 스페인의 모든 공격은 이 둘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떤 팀을 만나도 65% 이상의 볼 점유율을 차지한다.

한때 한국계로 알려져 한국 팬들을 설레게 했던 실바도 주목할 선수. 맨시티를 4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려놓았다.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빠르고 정확한 패스에 드리블 능력도 뛰어나다.

푸울이 빠진 수비는 떠오르는 신에 알바가 책임진다. 발렌시아 원곡 수비수인 알바는 올 시즌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프리메라리가 넘버원 풀백으로 자리 잡았다. 170cm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기동력과 투지 넘치는 플레이, 그리고 과감한 공격가담에 이은 날카로운 원발 슈팅이 일품이다. 맨유 퍼거슨 감독이 에브라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점찍고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선수다.

이탈리아도 만만치 않다. 이탈리아의 카타니초는 어느 팀과 만나도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한다. 이번 예선 성적도 8승2무.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프란켈리 감독이 2010년 팀을 맡아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세대교체에 성공, 월드컵 이후 침체됐던 분위기를 일신했다.

이탈리아의 정신적 지주는 주장 부폰. 올해 1월 국제축구연맹(UEFA)은 최근 25년간 뛰어난 활약을 펼친 골키퍼들의 순위를 발표하면서 부폰을 ‘넘버원’으로 올렸다. 부폰은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 지단의 결정적인 페널티를 선방하며 이탈리아에



스페인 사비 이탈리아 피를로

월드컵을 안겨주는 등 조국과 소속팀 유벤투스에 수많은 우승컵을 안겨준 베테랑이다.

이탈리아가 이번 유로 2012에서 우승을 기대하는 이유는 피를로의 부활과 신에 발로델라가 있기 때문이다. 피를로는 한동안 ‘노쇠한 미드필더’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으나 올 시즌 유벤투스에서 3골 13도움을 올리며 부활에 성공했다. 프란켈리 이탈리아 감독은 “피를로 같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선수는 없다”며 극찬했고 스페인의 보스케 감독은 “피를로가 나를 두렵게 한다”며 가장 경계할 선수로 꼽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로는 ‘악동’ 발로델라가 나선다. 이따금 망언과 좋지않은 행동으로 비난 받지만 적어도 재능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선수다. 그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이탈리아의 성적이 직결된다.

스페인 축구는 당대 최고다. 플라티니 유럽 축구연맹 회장도 땀겨

아스날 감독 등 대다수 전문가들이 스페인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의 적은 상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레알과 바르샤 선수들 간의 불화가 항상 시한폭탄이다. 최근 팀의 핵심 사비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레알이 출장할 때 그들은 축하해줬다. 그것이 스포츠 정신이고 우리는 상대를 항상 존중한다. 하지만 레알 선수들은 우리를 다르다는 걸 알았다”며 레알 선수들을 비난해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 발언이 팀 내분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또 이탈리아의 발로델라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축구장의 인종차별과 폭력으로 악명 높은 공동 개최국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회 기간 중 인종 차별이 일어난다면 그만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 벤치를 긴장시키고 있다.

공격축구의 수비축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조별리그 최고의 빅매치 스페인-이탈리아 대결은 11일 새벽 1시(한국시각) 폴란드의 아레나 그란스크에서 열린다.

◇선발 출전 예상 베스트 11

▲스페인 (4-5-1) = 카시야스(GK) - 알바, 피케, 라모스, 아르베올라 -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사비, 알론소, 실바 - 토레스

▲이탈리아 (4-3-1-2) = 부폰(GK) - 키엘리니, 보누치, 바르찰리, 아바테 - 마르키시오, 피를로, 로시 - 몬톨리보 - 카사노, 발로델라

/유재관기자 jkyou@kwangju.co.kr

‘용병부대 카타르’ 초반에 기 꺾어라

내일 새벽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차전
기선제압 못하면 큰 낭패... 40도 무더위 변수로

최강희호가 드디어 브라질 가는 길에 첫 발을 내딛는다.

9일(한국시각) 새벽 1시 15분 ‘용병부대’ 카타르와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 예선전을 치른다.

카타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1위로 아시아에서는 9위에 해당한다. FIFA 랭킹 35위(아시아 3위)의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귀화용병들을 전면에 내세워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기선제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노정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태극전사들에게는 귀화용병들 뿐만 아니라 날씨와의 싸움도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사막에서 불어닥친 모래먼지와 낮기온이 40도에 육박한다. 또 고온다습한 기후에 경기가 열리는 밤기온도 30도 이상이 된다.

경기장 상황도 큰 변수다. 한국-카타르전이 열리는 카타르 알사드 스타디움은 1969년 창간된 알 사드의 축구

장으로 1974년 지어져서 지난 2004년 리모 델링했다. 라커룸 내부에는 자쿠지와 샤워나 시설과 최신 웨이트장까지 갖춰져 있고 그라운드 잔디 상태도 최상급이다.

더욱이 현재 카타르에서 유일하게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경기장이다. 관중석의 좌석과 그라운드 사방에서 시원한 냉기나 오도록 설계돼 있다. 경기장 하단에 잔디구장을 둘러싸고 축구공 지름만한 에어컨 송풍구가 즐지어 설치돼 있다. 에어컨을 가동

하면 카타르의 극심한 무더위를 10°C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9일 도하의 최고기온이 38도로 평소보다 낮고, 경기가 열리는 오후 7시15분에는 30도 내외로 떨어져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편안한 기온이 될 것이라는 기상전망이다. 지난 6일 카타르에서 첫 훈련을 한 최강희 감독도 “기후나 환경이 정도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고 말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카타르전 TV중계 못보나

중계권 협상 결렬

월드컵 최종예선이 지상파 TV로 중계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스포츠국장들은 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일에 열릴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카타르 원정경기 중계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유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중계권을 보유한 월드컵스포츠그룹(WSG)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WSG가 월드컵 최종예선을 포함해 4년간 20경기를 중계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금액은 5200만 달러(약 609억

원). 경기당 약 3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반면 지상파 3사는 같은 조건으로 1700만 달러(약 205억원)를 제안했다. 세금을 포함하면 약 2040만 달러(약 239억원)까지 올라간다. WSG의 요구액과 무려 3000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결국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카타르 원정경기 중계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악에는 오는 12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리는 레바논과의 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마저도 중계가 불투명하다.

지상파 3사는 “계속 협상을 벌여 다른 경기들은 중계를 상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타결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국립공원 16좌 고객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두번째 산행 6월 21~22일(무박2일) / 주영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 주관 | Mtour

후원 | 광주일보사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